

충남은 기호유학의 중심지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도는 조선시대 유학의 중심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유학이 크게 영남유학과 기호유학으로 대별되는데, 기호유학의 중심이 바로 충청도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 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문신관료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던 조선시대에는 끊임없이 정치 운영 원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조선후기 여당에 해당하던 기호학파의 유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기호학파의 기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畿內]과 충청지역에 해당하는 호서(湖西)를 가리킨다. 그런데 기호학파의 중심인물들은 호서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기호학과 가운데 울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연산)과 그의 제자 신독재 김집(金集, 1574~1656, 연산),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회덕),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 회덕),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 금산·공주), 송애 김경여(金慶餘, 1596~1653, 회덕), 그리고 김집 문하의 시남 유계(兪槩, 1607~1664, 임천·금산), 미촌 윤선거(尹宣舉, 1610~1669, 노성) 등이 호서의 금강유역 인물이다. 김장생·김집 부자가 연산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은 이 지역에 많은 선비들이 운집하게 하였으며, 이후 논산지역(연산, 노성)을 17세기 조선 예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들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다섯 사람(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을 충청오현이라 했는데, 이들이 모두 금강 유역의 인물이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으니, 이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림(山林)’은 조선시대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징소를 받은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특유의 존재로서,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므로,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京畿)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충청도 출신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姜鶴年, 1585~1647, 연기·회덕), 김집(연산), 조극선(趙克善, 1595~1658, 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權誥, 1604~1672, 유성), 윤순거(尹舜舉, 1596~1668, 노성), 이유태(금산·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尹元舉, 1601~1672, 노성), 송기후(宋基厚, 1621~1674, 회덕), 이상(李翔, 1620~1690, 전의), 윤拯(尹拯, 1629~1714, 노성),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청풍), 이기홍(李箕洪, 1641~1708, 연풍) 등이다.

17세기의 호서유학이 연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회덕, 노성, 금산, 보은, 옥천 등지로 확산되었다고 한다면, 18세기의 호서유학은 금강 유역에 머물지 않고 남한강 유역과 내포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송시열의 적전은 수암 권상하(남한강 유역의 청풍)가 이었으며, 권상하의 문하에서는 이기론, 예론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 하나였던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일명 호락논쟁(湖洛論爭)]이 전개되었다.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낙론(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호론(湖論)]으로 갈리었다. 호론의 중심 인물인 남당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내포의 결성현 남당[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尹鳳九, 1681~1767), 매봉 최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金漢祿), 봉암 채지홍(蔡之洪, 1683~1741)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도에 살았지만, 중심 인물인 외암 이간(李柬, 1677~1727)은 온양의 외암[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한원진의 적통이면서 기 철학자로 유명한 녹문 임성주(任聖周, 1711~1788)도 원래는

청풍 출신이지만 말년에는 공주에 머물고 있다.

이 외에도 토정 이지함의 조카로 대북의 영수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아계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위치), 인조초 김장생·장현광과 함께 조정에 징소된 3대사림으로 예학에 뛰어났던 박지계(신창,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 효종때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姜嬪)의 억울함을 논하다가 죽임을 당한 학주 김홍욱((金弘郁, 1602~1654, 정조대의 벽파 김구주의 조상으로 서산 사람, 성암서원 배향,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김굉필·정여창·이언적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었고, 김육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던 포저 조익(趙翼, 1579~1655), 권필·윤근수·이호민 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던 동악 이안눌(李安訥, 1571~1637),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던 야곡 조극선,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에 우거(寓居)했던 약천 남구만(南九萬, 1629~1711), 홍주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 변암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추사체로 잘 알려진 완당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예산) 등이 내포의 인물이며, 주자학적 경전해석에 반기를 들고 자주적 학풍을 열었던 백호 윤희(尹鑣, 1617~1680, 공주 우거), 구운몽의 저자인 서포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연산), 인문지리학자이며 『택리지』의 저자인 청담 이중환(李重煥, 1690~1752, 공주), 주역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정역의 이론체계를 세운 일부 김항(金恒, 1826~1898, 연산) 등이 금강 유역에서 활동하였다.

이 외에 북학과 실학의 선구자였던 담헌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천안지역에 연고를 갖고 활동한 바 있으며, 면암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에 앞장섰던 한말의 큰 유학자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유학사에서 충청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고,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해도 좋을 듯 하다.

흔히 선비문화를 논하면 문약을 들먹이곤 한다. 문치주의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시대의 사림정치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비 개개인은 결코 나약하지만은 않았다. 선비들의 현실 비판과 개혁정신은 종종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비정신은 오늘날의 나약한 현대인, 특히 개인의 영달을 위해 지조와 신념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일부의 정치가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의 선비들은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외적의 침략 앞에서는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앞장서 싸웠다. 일찍이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에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아산), 김시민(金時敏, 1554~1592, 천안), 영규(靈圭, ?~1592, 공주) 등 충남의 명장과 의병이 큰 역할을 했다. 중봉 조헌(趙憲, 1544~1592)은 충남 출생은 아니지만, 일찍이 홍주목 교수, 보은현감, 공주목 제독관 등을 역임하였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옥천군 안읍밤티(安邑栗峙)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여 충청도의 선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서 순절할 때에 충청도의 선비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전통시대 대부분의 의병들은 원래 창칼을 들고 싸움을 하던 무인이 아니라, 서책을 갖고 글을 읽던 문인이었다. 단지 외적의 침략에 맞서 붓을 내던지고 정신력을 바탕으로 기병한 것이다.

조선시대 강건(剛健)한 선비문화의 전통은 근대에 이르러 항일 구국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선 말 일제강점기에 호국에 온몸을 던졌던 의병장이나 독립운동가로 민종식(閔宗植, 1861~1917), 이남규(李南珪, 1855~1907), 김복한(金福漢, 1860~1924),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이종일(李鍾一, 1858~1925), 유관순(柳寬順, 1902~1920?), 이동녕(李東寧, 1869~1940), 김좌진(金佐鎭, 1889~1930),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윤봉길(尹奉吉, 1908~1932) 등이 충남 출생이거나 충남과 연고를 지니고 있다.